고산스님-정각회 임원 환담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7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정각회 임원을 총무원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모임에는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일면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 국회정각회장 서석재, 부회장 하순봉, 고문 권익현 김명윤 김태호, 감사 박헌기 의원이 참석했다.

오찬에 앞서 고산스님은 불교발전을 위해 힘써온 정각회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등에 정각회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권익현 의원은 "불교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불교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20년간 심장병환자·노인 돌봐

사회복지대회 총리상 보운스님

4월30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대한불교감로심장회 이사장 보운스님(사진 왼쪽)은 20여년 이상 복지활동을 해온 '복지포교사'다.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해 감로심장회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주로 경상대학병원과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병간호, 목욕, 빨래 등의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작년 감로심장회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무료검진 등 의료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위한 직접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도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감로심장회는 그동안 심장병환자 등의 무료수술 지원사업을 주로 펼쳐왔지만 보운스님이 맡으면서부터는 이처럼 활동폭이 넓어졌다. 보운스님은 자원봉사활동을 농촌지역의 불우 이웃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종교는 주는 것입니다. 주는 데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몸을 움직이기 어렵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운스님은 20년간의 교도소 교화활동과 각종 불우이웃 돕기를 펼치면서 3회의 법무부장관상과 교정대상(94년)을 수상한 바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교차로

대장경전산화 후원 법문

보성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스님은 4월16일 고려대장경연구소 주최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후원법회에서 금일봉을 전달하고 법문을 통해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7천만원의 후원금을 약정했다.

서울 고려사 1돌 기념법회

태연 고려사 관장 스님은 4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고려사(분원주지 정화) 법당에서 개원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78년 창건된 재일본 고려사는 84년 한일우호평화의탑을 완공하고 일본내 3,460 곳에 일제하 희생 유골에 대한 조사·수습의 일원으로 평화의종을 조성했다.

대구 시민 환경대학 개설

성타 대자연환경보전협회 회장 스님(불국사 주지)은 6일부터 3개월과정의 '시민환경대학'을 개설했다. 매주 화, 목요일 오후2시 경북대 박물관내 시청각교육실에서 진행. (053)761-3350

법륜종 3대 이사장에 유임

정각 목포 보현정사 주지는 최근 법륜종 재단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3대 이사장에 유임됐다. 스님은 "복지불사를 더욱 활발히 벌이겠다"고 밝혔다.

나라 국민위한 경승법회

자우 경찰청 경승실장(금강사 주지) 스님은 13일 오전 7시 경찰청 법당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경승기원법회를 거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등 3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이날 법회에는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이 마하보디 수도원에서 모셔온 백색·홍사리 등 2과의 부처님진신사리 친견법회도 함께 봉행된다.

북경 北지원 NGO회의 참석

명진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스님은 미국NGO와 유엔식량계획 베이징 사무소가 공동주최하여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제비정부단체(NGO) 회의'에 남북농업협력 민간연대대표로 참석했다.

불우이웃에 8백만원 성금

덕수 부산 삼광사 주지는 8일 부산시내 거주 무연고 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65세대를 선정해 총 8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다과회를 개최했다.

의정부 광명탑 점등식

혜승 의정부봉축위원회 위원장 스님(의정부포교원 원장)은 6일 의정부역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통일과 국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한 '자비의 광명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소쩍새마을에 자비등 보시

해운 일본 평성사(해인사 일본포교원) 주지는 이유선, 강회선씨 등 41명과 함께 6일 '소쩍새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 동참금 1백만원을 보시했다.

청송 시아본사 개원법회

도순 시아본사 주지는 11일 경북 청송군 부동면 신점2리에 소재한 시아본사를 개원하고 낙성 및 부처님 봉안식을 봉행한다. (0575)873-3222

새천년 준비위 기획실장에

이태행 前 불교TV 본부장은 1일 청와대 직속 새천년 준비위원회 기획실장으로 임명됐다.

병원기금 3천5백만원 수령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3일 일본 대정대 이시가미 젠노 교수의 방문을 받고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3백5십만엔(약 3천5백만원)을 전달받았다.

또 7일에는 개교93주년 기념으로 공직동문들을 초청, '모교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인간성 회복 세미나' 참석

목정배 동국대교수(불교문화연구원장)는 7일 경희대 간호학과 설립 50주년 기념 '종교를 통한 민간성 회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효'주제 김영임 소리공연

김영임 명창은 9일 오후 3시, 7시 수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효'를 주제로 한 '99 김영임의 소리' 공연을 개최했다.

부처님 오신날 기념 경로잔치

유혜주 서울 신도림복지관장은 13일 오전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처님오신날 기념 경로잔치 및 노래자랑을 연다. (02)631-9792

◇본사를 방문한 한스씨 가족.

"독어 '요전' 출간…한마음법 만나 기뻐"

7월 獨 대행스님 법회 준비차 방한 한스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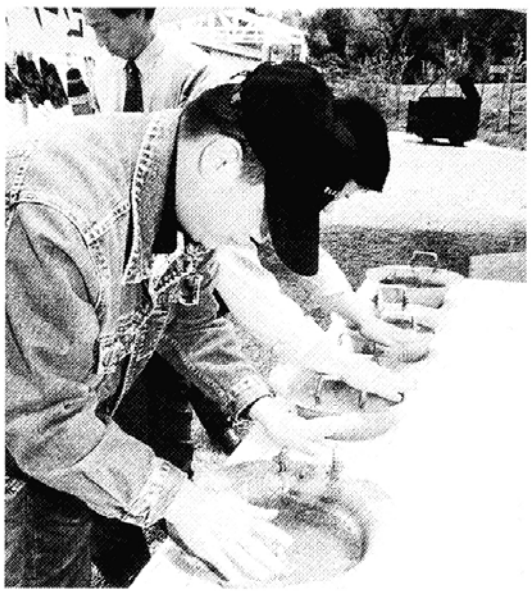
오는 7월 31일 독일 뒤셀도르프 근교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릴 대행큰스님 법회 준비를 위해 부인 베티나, 아들 모리츠, 딸 한나와 함께 내한한 독일인 불자 한스 욕 애플레씨. 오랫동안 참된 내면의 길을 찾던 중 지난해 3월 베를린에 사는 한마음선원 신도를 통해 대행 큰스님 가르침을 접하게 됐다는 한스씨는 이번에 〈한마음요전〉 가운데 약 80쪽에 달하는 부분을 번역해 〈Das Tor zur Befreiung(해탈의 길)〉이라는 독일어 단행본으로 출간한다.

"독일 한마음선원 지원(지원장 혜진) 법회에서 법문 비디오테잎과 동시통역을 통해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을 배웠지만 처음에는 '한마음' '주인공' '마음' '인연'이라는 말들이 생소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전제한 한스씨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같은 독일의 불자들이 좀더 쉽게 큰스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한마음요전〉을 토대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에서 곧 출간될 이 책은 오는 7월 독일 대법회에서 독일불자들에게 소개된다.

"〈한마음요전〉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지혜가 계발되는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한스씨는 "독일에 돌아가서도 뜻 맞는 이들과 팀을 이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고,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한다.

내과의사이면서 자신의 심장병을 주인공 관하는 마음법을 통해 스스로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고 밝힌 한스씨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큰스님의 가르침에 감사한다"면서 "생활속에서, 공부하면서 부딪치는 많은 의문들을 이해하기 쉽게 상담해주는 혜진스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마음의 때 씻어요"

Focus

"티벳불자들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씻어보세요."

경주에서 6월5일까지 열리고 있는 99한국불교예술대전 체험관 앞에는 마음의 때를 씻는다는 상징성을 지닌 관욕제 행사가 펼쳐져 신비한 체험을 하게한다. 우리 놋세숫대야 모양으로 양 귀에 달린 손잡이를 마구 문지르면 "웅~"하는 진동소리와 함께 물방울이 튄다.

이 그릇은 드넓은 중국땅의 3대 발명품으로 꼽히는 '구룡용종 분수동분'이고, 티벳스님들이 특별히 이번 예술대전에 티벳 불교 체험을 위해 찬조출품한 것이라고. 티벳스님들의 설명에 따르면 물이 튀어오르는 현상은 우주만물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우주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수 진동은 물을 수직으로 튀어오르게 하면서 물의 성질을 용수로 변화시키고 알파파를 발생시켜 정신과 신체의 안정을 이로어 도를 이루게 한다는 것. 스님들은 4개의 관욕제가 있는 그릇들 옆에서 모래만다라를 시연하고 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조직강화로 충청불심 중흥"

조계종 제5교구 새신도회장 김정길씨

"충청권 불교 중흥을 위해 작은 법등이 되겠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충북) 초대 신도회장에 김정길(53) (주)삼원개발 회장이 임명돼 7일 오후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혜광) 대웅보전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김정길 회장은 "초대 교구신도회 회장으로서 조직 활성화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청주불교방송 및 청주선불교회관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중재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길회장은 92년 충북대 경영대학원을 졸업, 충북럭비협회회장·명예회장, 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장, 충북도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20년전부터 법주사에서 신행을 펼쳐온 토착 신도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충북도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청주 관음사 이두스님과, 법주사 혜광스님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C.M.M INDUSTRY
division of KWANG SAN.

여러분 사찰의 모든 공간을 경제적이고 품격있게
연출하고자 하실 때 다미론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미 많은 불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허등록 제0200029호. 상표등록 제418243호. 다미론베드 특허출원 10-1999-0014792호)

저희 CMM 실업은 지난 50여년간 전통적 소재이고 자연재인 등심초 자리 바닥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온 광산기업에 그 뿌리를 두고 불자님들의 건강과 생활의 격을 경제적으로 한껏 높혀드릴 수 있는 다미론을 개발하여 전국사찰과 불자님의 댁으로 보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불자님들께서 다미론의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의 경제성에 찬사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본사)서울 마포구 창전동 3-68 덕성B/D 203호 Tel 02-332-2799 Fax 02-332-2799
공장)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206-2 광산B/D Tel 062-526-1633 Fax 062-524-4123
(Internet Homepage)http://cmm.bz.co.kr (E-mail)cmmhome@chollian.net

•전국 소량 배송가능 『제 품 사 양』 (단위 mm)

구분			내 용
개요	사이즈		915×1,820×10(조립가능-축소가능) 약2매 / 1평당
	색 상		미론블랙(미색)
	중 량		A,B형 5Kg/ 1매
	재 질	피침	등심초 돗자리
		심재	A형 폴리에틸렌고압측벌포가교판+나왕합판 B형 삼동+순동(99.9%) 조립형
	A형 기본 B형 수억 방지	마감	앞면 나일론직물(해리) - 일본산 바닥면 고급 부직포 가공 공업용스테플접합+글루건접합
발주가능량			3,000 – 5,000매 / 30일
제품 특성			접철가능, 보관 및 이동관리 용이 제품자체 보온, 보냉효과 우수(시계절사용가능) - 냉난방비 대폭 절감 비흡수성 심재 사용으로 위생적 다미론 베드-비접착 원목사용 완전조립식 수억과 방지(B형)-각종수면질에 건강질에 개선효과 수요처별 사용예수에 따라 가격조정가능 시공용(무직포미사용)에는 시공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